

Galerie Vazieux

Kiaf A.04



People, 1985, Ink on Hanji, 177×97cm

LEE UNG-NO

1904~89 Korea. Lee Ung-no was one of the most prominent Asian painters of the 20th century. Having begun his career in Korea and Japan, he abandoned traditional art and shifted to abstraction, thus playing a pioneering role in the foundation of contemporary Korean art. After settling in France in 1959, this development in his work brought him into contact with the Parisian avant-garde, and, in particular, Hans Hartung, Pierre Soulages, and Zao Wou-Ki. A painter, sculptor, and engraver, Lee Ung-no explored the relations between calligraphy and abstraction. In the 1970s, these pictorial experiments led him to focus on the emblematic subject of crowds, considered a symbol of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during the ensuing decade. In 2007, a museum entirely devoted to his works was inaugurated in Daejeon (KR). For Kiaf Seoul 2023, Galerie Vazieux commemorates the 120th anniversary of the artist's birth. All the artworks directly come from the family estate.

이응노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작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을 시작한 그는 전통미술부터 추상화로의 변모 과정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1959년 프랑스에 정착 후, 회화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지속해서 연구하며 한스 아르통, 피에르 솔라주, 자오 우-키 같은 파리의 전위예술가들과 어울렸다. 이응노는 화가이자 조각가일 뿐만 아니라, 서예와 추상화의 관계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로 탐구했다. 1970년부터 10년 동안의 회화적 연구를 통해 마침내 그의 표현적 자유가 집약적으로 담긴 대표 작품이자 한국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군상(群像)>이 탄생했다. 2007년 대전에는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이응노미술관이 개관했다. 갤러리바지우는 2023년 이응노 서거 120주년을 맞아 키아프 서울에서 이응노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